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2년 동남권 경제

이 글 연구위원(glee@bnkfg.com)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2022년 동남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경제 키워드는 ‘물가’로 조사됐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높아진 결과로 파악된다.

2위는 27개월 만에 가격 하락세로 전환된 ‘부동산’으로 조사됐고 3위는 청년 취업자수가 역대 최저치까지 감소하면서 ‘일자리’가 선정됐다. 4위는 부품 공급난 문제와 미국의 자국 중심 보조금 지급 등으로 주목받은 ‘자동차’로 조사됐고 5위는 고물가에 따른 통화긴축으로 크게 상승한 ‘금리’가 선정됐다. 6~10위는 ‘러-우전쟁’, ‘중소기업’, ‘친환경’, ‘수출’, ‘조선’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슈 키워드 전망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부동산’이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인터뷰 대상자의 50%가 지목한 만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관심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위는 ‘금리’, 3위는 ‘경기침체’, 4위는 ‘친환경’, 5위는 ‘물가’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엑스포’, ‘일자리’, ‘수출’, ‘신공항’, ‘지역균형발전’ 등이 내년도 10대 이슈 키워드에 포함됐다.

2022년 동남권 경제 10대 키워드

올해 동남권에서 가장 주목 받은 경제 키워드는 ‘물가’로 조사됐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높아진 결과로 파악된다.

2위는 27개월만에 가격 하락세로 전환된 ‘부동산’으로 조사됐고 3위는 청년 취업자 수가 역대 최저치까지 줄어든 영향으로 ‘일자리’가 선정됐다. 4위는 부품 공급난 문제와 미국의 자국 중심 보조금 지급 등으로 주목받은 ‘자동차’로 조사됐고 5위는 고물가에 따른 통화긴축으로 크게 상승한 ‘금리’가 선정됐다. 6~10위는 ‘러-우전쟁’, ‘중소기업’, ‘친환경’, ‘수출’, ‘조선’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0대 이슈 키워드 중 6개가 올해도 재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소상공인’, ‘소비’, ‘에너지’가 10대 이슈 키워드에서 제외된 반면 ‘물가’, ‘금리’, ‘러-우전쟁’, ‘조선’이 순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경제 10대 이슈 키워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위	부동산	부동산	물가
2위	온라인	자동차	부동산
3위	소상공인	온라인	일자리
4위	일자리	중소기업	자동차
5위	수출	소상공인	금리
6위	중소기업	수출	러-우전쟁
7위	자동차	일자리	중소기업
8위	조선	소비	친환경
9위	코스피	에너지	수출
10위	소비	친환경	조선

주 : 굵은 글씨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10위권 내에 포함된 키워드

자료 : BNK경제연구원

본 연구의 키워드는 문자로 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됐다. 분석대상은 2022년 1~11월중 부산, 울산, 경남 주요 지역신문 경제면에 게재된 총 26,102건의 기사이다.

2022년 동남권 경제 키워드를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생성한 결과 아래와 같은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드 클라우드는 단어의 빈도를 구름 모양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빈도수에 따라 글자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 단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2년 동남권 경제 워드 클라우드



자료 : BNK경제연구원

1위 : 물가

1위 키워드는 ‘물가’가 선정됐다. 코로나19, 러-우전쟁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된 가운데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경우 2022년 7월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하며 외환위기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¹⁾²⁾.

2023년에는 글로벌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물가 안정세³⁾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공급망 불안 완화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경우 물가 둔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위 : 부동산

‘부동산’이 2위로 조사됐다. 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은 2020년 7월부터 27개월간 상승했으나 2022년 10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⁴⁾⁵⁾. 동남권 아파트매매거래도 전년대비 절반 수준까지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⁶⁾.

2023년 동남권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거래량 감소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물량의 경우 올해보다 15.6% 증가한 47,390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 국내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증가율도 2022년 2분기중 각각 전년동기대비 9.9%, 35.2%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 3분기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 수준

2)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도 2022년 6월 9.1%로 40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

3) 2022년 하반기중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 국내 : 6.3(7월) → 5.7(8월) → 5.6(9월) → 5.7(10월) → 5.0(11월)

· 미국 : 8.5(7월) → 8.3(8월) → 8.2(9월) → 7.7(10월) → 7.1(11월)

4) 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20.3Q	2020.4Q	2021.1Q	2021.2Q	2021.3Q	2021.4Q	2022.1Q	2022.2Q	2022.3Q
2.0	5.4	9.8	11.8	13.6	13.4	8.9	6.8	3.2

5) 동남권 시군구중 해운대구(-6.2%), 동래구(-6.0%), 동구(-5.9%)가 하락폭이 최대(전년동월대비, 2022년 11월 기준)

6) 동남권 아파트매매거래량(호)

2020.3Q	2020.4Q	2021.1Q	2021.2Q	2021.3Q	2021.4Q	2022.1Q	2022.2Q	2022.3Q
65,231	91,531	41,440	54,887	50,275	44,029	31,384	33,840	22,554

3위 : 일자리

3위는 ‘일자리’가 선정됐다. 동남권 청년층 취업자수가 역대 최저치까지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 볼 때 동남권 취업자수의 경우 30대 이하는 월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60대 이상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⁷⁾.

2022년 1~11월 기준 동남권 직업별 취업자수 증감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2.7만명)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전문가및관련종사자(2.1만명),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1.4만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무직(-2만명)은 감소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판매직(-1.6만명), 단순노무직(-1.4만명)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4위 : 자동차

4위는 ‘자동차’로 조사됐다. 부품 공급난 문제와 미국의 자국 중심 보조금 지급 등이 주목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남권 자동차산업은 금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일부 완화되면서 내수가 늘어나고 수출의 경우도 친환경차 및 SUV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1~10월중에는 전년동기대비 6.2%의 생산 증가율을 시현했다⁸⁾.

2023년 동남권 자동차 산업은 내수는 개선되겠으나 수출이 감소하면서 미약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출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수요 위축, 미국 IRA 불확실성⁹⁾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 등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7) 동남권 30대 이하(15~39세 기준) 및 60대 이상 취업자수 추이(천명, 1~11월 평균)

· 30대 이하 : 1,759(1998년) → 1,502(2008년) → 1,331(2018년) → 1,160(2022년)

· 60대 이상 : 266(1998년) → 417(2008년) → 690(2018년) → 930(2022년)

8) 동남권 자동차 반기별 생산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1.4(2022년 상반기) → 14.1(2022년 7~10월)

9)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 및 대체에너지 차량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대미수출 경쟁력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

5위 : 금리

금년들어 급등세를 보인 ‘금리’가 5위로 선정됐다. 미국 기준금리는 2020년 3월 이후 0.25%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올해 3월부터 7차례 인상되며 4.5%까지 올랐다. 국내 기준금리의 경우도 2020년 5월부터 0.5% 수준을 유지했으나 글로벌 금리격차, 국내 물가상승 및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1년 8월부터 총 9회에 걸쳐 3.2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기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은 2023년 상반기중 미국 기준금리가 4.5~5.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의 경우 내년 상반기중 3.75%까지 상승한 후 안정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¹¹⁾.

6위 : 러-우전쟁

6위는 ‘러-우전쟁’으로 선정됐다. 금년 2월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따른 원자재 공급 차질 및 물가급등은 국내외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남권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 LNG 운반선 및 탱커 중심으로 수주가 확대되는 등 일부 업종은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¹²⁾.

2023년에도 러-우전쟁은 동남권 경제의 주요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양국의 전쟁이 단기간내 종식되지 않을 경우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및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 주력산업 업황은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10) 시장금리(3년만기 AA- 회사채 기준) 역시 올초 2.46%에서 11월중 5.66%까지 오르는 등 큰 폭으로 상승

11)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중 기준금리는 3.75%,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12) 러시아산 천연가스 이용이 제한되면서 선박수송을 통해 공급되는 LNG 및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 단 일부 조선업체의 경우 러시아 발주물량 취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

7위 : 중소기업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7위로 선정됐다. 국내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의 경우 금년 10월말 72.1%까지 하락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73.2%)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국내외 경기둔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중소기업 업황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작년말 86.4에서 올해 12월 82.5로 3.9p 하락했으며 업종별로도 자동차, 조선 등 동남권 주력산업 대부분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¹³⁾.

8위 : 친환경

‘친환경’이 8위를 차지했다. 390개 이상의 글로벌 대기업¹⁴⁾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100%를 추진하는 ‘RE100’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우리 정부도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¹⁵⁾.

동남권 산업계도 친환경 기조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해운·조선업계는 LNG 추진 선박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 및 활용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석유화학업계도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13) 세부업종별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p, 2021년 12월 → 2022년 12월)

· 자동차 : 92.2 → 91.5, 조선 : 94.5 → 89.6, 석유화학 : 89.2 → 78.3, 철강 : 88.9 → 73.9, 기계 : 88.3 → 86.0

14) 2022년 12월 현재 애플, BMW, 코카콜라 등 394개 글로벌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 국내에서도 삼성, SK, 현대차 등 대부분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1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를 규정.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합해 확대신설한 탄소중립위원회를 기반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

9위 : 수출

‘수출’이 9위로 선정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전세계 수입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 부진을 둘러싼 우려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 1~11월중 동남권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한 1,298억달러에 그치며 지난해 증가율(28.3%)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수출 증가율도 모두 하락했다. 경남이 전년동기대비 -13.5% 감소하며 가장 부진했으며 다음으로 부산, 울산 순으로 둔화폭이 컸다¹⁶⁾. 동남권 주력 품목 중에서는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동제품, 냉장고 등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¹⁷⁾.

10위 : 조선

10위는 ‘조선’으로 조사됐다. 동남권 조선업의 수주 호조세가 지속된 가운데 생산은 금년 1~10월중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¹⁸⁾. 2023년에도 조선업 생산은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선박 수주의 경우 해운시황 하락, 고금리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선사가 충분한 수주잔량이 확보된 만큼 선별적 수주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저임금,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조선업 취업자수의 경우 2017년 상반기 16만9천명에서 2022년 상반기 13만2천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16) 시도별 수출액 증가율 변화(%), 2021년 → 2022년, 1~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 부산 : 31.6 → 10.8 · 울산 : 31.7 → 22.3 · 경남 : 21.7 → -13.5

17) 동남권 수출감소율 상위 품목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100억달러 이상 품목, 1~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 -34.5 · 동제품 : -12.7 · 원동기및펌프 : -11.9

18) 시도별로는 부산이 149.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울산은 37.2%, 경남은 19.8% 증가

19) 전국 조선업 취업자수 추이(천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상반기 기준)

· 169(2017년) → 143(2018년) → 138(2019년) → 146(2020년) → 131(2021년) → 132(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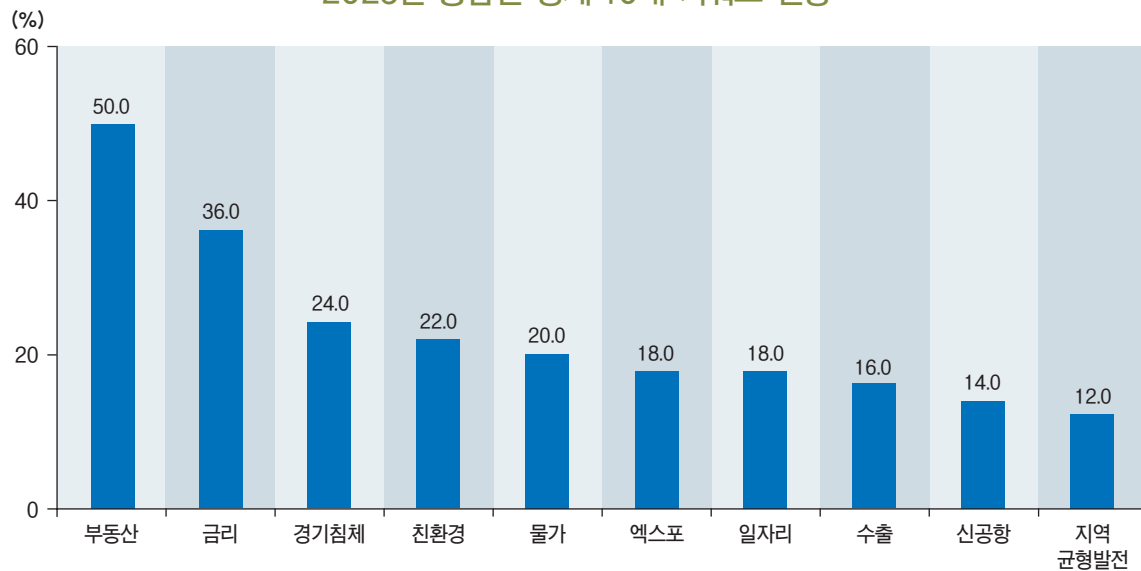
2023년 동남권 경제 10대 키워드 전망

지역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²⁰⁾한 결과 내년도 동남권 경제에서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는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터뷰 대상자의 50%가 지목한 만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높은 관심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위는 금리 인하 시기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금리’로 조사됐다. 3위는 주요 기관이 각국 경제성장률을 연이어 하향조정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을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기침체’가 차지했다.

4위는 ‘친환경’이 선정됐다. 지속가능성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및 기업 차원의 탄소중립과 ESG 전환 등이 주목받는 모습이다. 5위는 상승속도와 상승폭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물가’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엑스포’, ‘일자리’, ‘수출’, ‘신공항’, ‘지역균형발전’이 10대 키워드²¹⁾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동남권 경제 10대 키워드 전망



주 : 비중은 응답자수 기준(중복허용)

자료 : BNK경제연구원

20) 동남권 주요 대학, 연구소, 산업계 및 경제유관기관 등의 27개 기관 전문가 50명 대상 인터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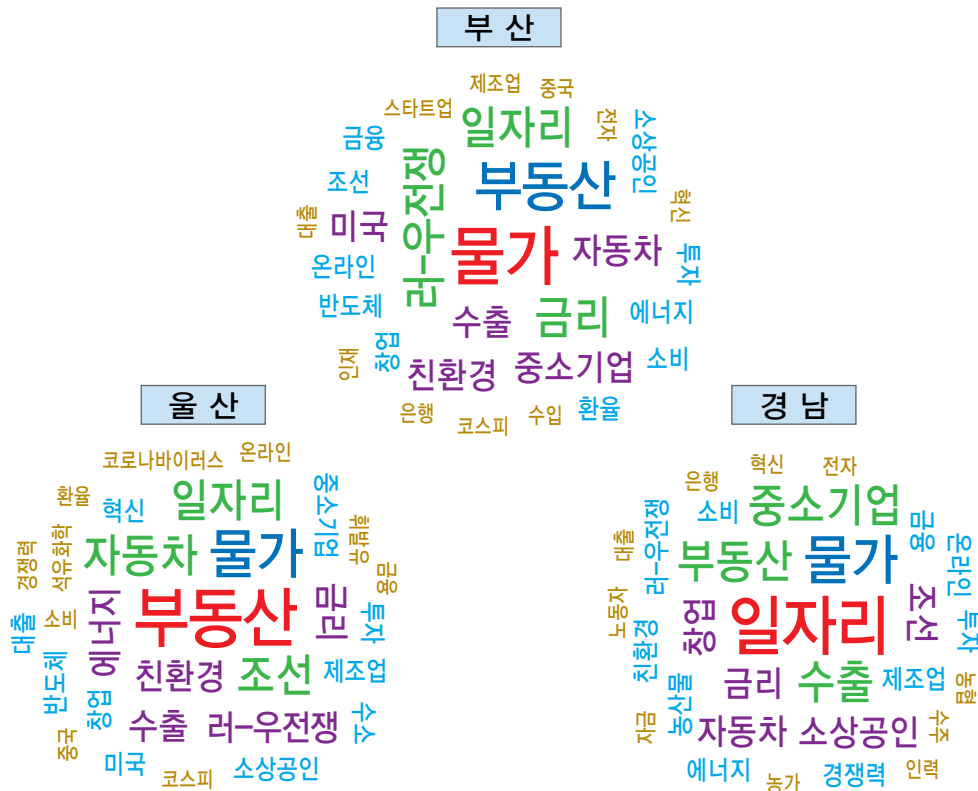
21) 기타의견으로 '디지털전환', '조선',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비' 등이 제시

[참고] 시도별 경제 10대 이슈 키워드 및 워드클라우드

■ 시도별 경제 10대 이슈 키워드

구분	부산	울산	경남
1위	물가	부동산	일자리
2위	부동산	물가	물가
3위	일자리	자동차	중소기업
4위	러-우전쟁	일자리	부동산
5위	금리	조선	수출
6위	자동차	금리	조선
7위	미국	친환경	창업
8위	중소기업	러-우전쟁	소상공인
9위	친환경	에너지	금리
10위	수출	수출	자동차

■ 시도별 워드클라우드



자료 : BNK경제연구원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 2022.12
 한국수출입은행, “해운조선업 2022년 3분기 동향 및 2023년 전망”, 2022.1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11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2.12
 미국 노동통계국, www.bls.gov
 부동산114, www.r114.com
 연합뉴스포맥스, news.einfomax.co.kr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부동산원, www.reb.or.kr
 RE100, www.there100.org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중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2020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02	동남권 신공함과 지역경제의 미래
03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04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06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과제
07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09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11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1년 동남권 경제

2022

01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02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03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04	원자재 시장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05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 변화 특징
0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 ICT산업 현황
07	2022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금융시장 변화 분석
09	동남권 인구가동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G2경제 현황과 지역경제 시사점
11	2023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2년 동남권 경제



희망을 품고 복이 도착했어요

2023년 새해에는
더 큰 행복으로, 더 큰 웃음으로, 더 큰 성공으로

좋은 소식들이 강충! 강충!
희망 가득한 해가 되시길 BNK금융그룹이 기원합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생명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2-12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정성재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2년 12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